



5면

전주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선포

전주매일

2022년 8월 29일 월요일 (음 8월 3일) 제308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미래산업의 균형발전 데이터 지역균형에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수도권·광역시 중심 데이터산업 편중

전북, 금융 등 분야별 빅데이터센터 보유

지역 특성 반영 산업데이터 육성 가능”

데이터 지역균형발전 3가지 방안 제시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지난 28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미래산업의 핵심인 데이터산업의 심각한 지역불균형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타파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데이터경제 시대, 지역주도 데이터 균형발전 이무자'라는 이슈브리핑을 발간하고, 정부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에 맞춰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추진방향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발표한 '2021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국내 데이터산업이 지속적 성장하였지만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편중이 80%, 7대 광역시 편중이 79%임을 밝혔다. 따라서 광역도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산업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북은 지역

ICT/SW 사업체 가운데 데이터 사업체 비중은 7.3%, 데이터 사업체 대비 공공데이터 공개 건수가 7.61건으로 각각 전국 6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 특장차, 재생에너지 등 산업데이터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LX SI 빅데이터 분석센터, 금융, 소방, 스마트관 등 분야별 빅데이터센터를 보유해 전북만의 특성이 반영된 산업데이터 육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에서는 지역에서도 차별성을 가진 로컬특화데이터를 생성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지역주도 데이터산업의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전북을 5극 3특 광역체계 독자적 권역으로 설정하고 전북민의 양질의 로컬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예정인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전북에도 지정하고, 전북에서만 산업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상용차, 농기계, 특장차, 식품, 재생에너지 등에 산업데이터 마이닝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지역의 산업데이터가 생성, 거래, 활용되기 위해 지역기업의 데이터 전환과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광역단위 또는 5극 3특 단위에서 설립하고 지역 데이터 유통을 위한 전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등도 지역에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전북의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기 위해 지역 산학연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지역주도적 데이터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지훈 박사는 “데이터는 미래산업에 있어 핵심자본”이라며, “정부는 데이터 자산에 대한 지역불균형에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여 지역별 특색 있는 데이터자산을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견을 듣고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등에 지역 데이터산업 육성 계획을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개막식이 열린 지난 27일 무주군 등나무운동장에서 김관영 도지사, 황인홍 무주군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무주 반딧불축제, 3년 만에 막 올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제26회 무주 반딧불축제가 3년만에 관람객들을 찾았다. 무주군과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지난 27일 등나무운동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전용승 위원장의 개막선언으로 개막식을 갖고 다음달 4일까지 등나무운동장을 비롯해 김환태문화관&최화미술관, 예체문회관, 자남공원, 남대천 일원, 신비탐사지 등 무주군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빛·생태 어우러진 새로운 컨셉으로 관람객 맞아 개막식과 함께 안성 낙화놀이·드론쇼 등 '눈길' 내달 4일까지 신비탐사 등 볼거리·즐거거리 '다채'

황조이안행렬 재연, 1박2일 생태체험, 천체를 관찰한 반딧불 소풍, 남대천 생명 플러스 등 문화 및 역사, 환경생태 행

사외에도 주·야로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 그리고 마술 버블 서커스, 태권도시범단 공연으로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생활을 했던 무주를 찾는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삶의 여유로움과 추억을 듬뿍 안겨 줄 전망이다.

제26회 반딧불축제는 다음달 4일 어린이놀이공원과 남대천음악회, 태권도시범단 공연을 마친 후 등나무운동장에서 김용임 조항호 김다현 가수 축하공연 등 9일간 각종 프로그램 일정을 마친 후 황인홍 군수 폐막사와 전용승 위원장의 폐막선언으로 폐막식을 갖고 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황인홍 군수는 “이번 반딧불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야간에 진행되는 빛의 향연으로 평생 잊지 못할 흥미롭고 가슴 벅찬 축제가 될 것이다”면서 “무주에서의 편안한 휴식과 감동을 자아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처음 시도된 드론쇼의 경우 남대천 창공에서 저·고공 비행과 반딧불이의 빛, 그리고 살아있는 반딧불이의 형상을 묘사한 환상의 쇼가 진행돼 남대천 창공을 의미심장하게 비추는 관공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비롯해 낙화놀이, 조선

왕조이안행렬 재연, 1박2일 생태체험, 천체를 관찰한 반딧불 소풍, 남대천 생명 플러스 등 문화 및 역사, 환경생태 행

전북 자치경찰, 인지도 상승

45.2%로 전년보다 25.7%p ↑
도민 의견 반영 치안시책 추진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 이하 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자치경찰과 관련한 전북도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도민 2,437명이 참여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및 치안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4개 분야(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 및 자치경찰 인식) 35개 문항을 도민들에게 조사했으며, 방식

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설문(2,233명), 응답자에게 직접 방문하는 대면 설문(204명)을 병행하며, 응답자는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했다.

이러한 결과, 인지도는 45.2%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19.5%) 대비 25.7%p 대폭 상승해 도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많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범죄안정성 및 인지도 기대감 등 전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로 조사되어 위원회 출범 이후 다양한 홍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치경찰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도민들이 자치

경찰에 거는 기대도 높아져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이 크다”며, “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이 바라는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치안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1위를 차지해 범죄환경개선사업 예산 3억을 확보했고, 과거부 주관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지역맞춤형 치안 시책 개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 추경예산에 보안등 설치 등 조도개선을 통해 범죄예방을 추진하는 ‘더 밝은 길, 함께 만들어요’ 프로젝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을 확보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장수 JANGSU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www.장수몰.com

NAVER 장수몰

장수몰 JANGSU MALL